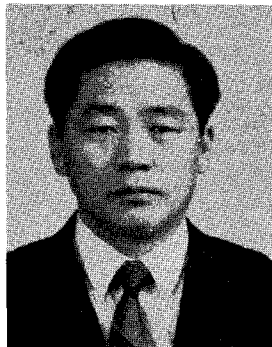


# 양계업의 내실화로 선진양계산업 성취

강력한 조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양계인은 양계조직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양계분야의 인력을 조작화하고 잘 관리하여 선진 양계산업을 앞당겨야 할 것이며 유통개선으로 양계산물의 식품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 박 근 식

가축위생연구소 검정화학과장/  
농학박사/본회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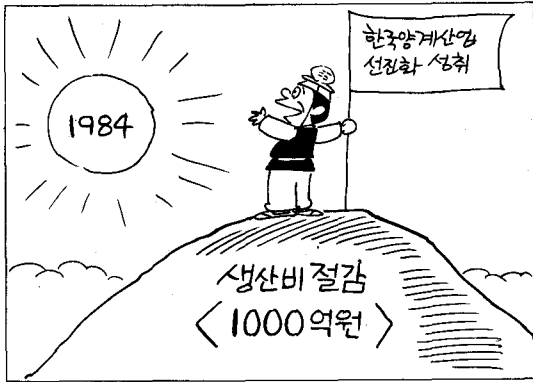
한국의 양계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여 왔었다. 이렇게 발전하는데는 몇가지의 요인들이 관여되어 있다. 그 첫째는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수요의 증가와 부화업체와 배합사료업체의 선도적인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전은 명확하게 말해서 양적인 면이었고 질적인 면이 아니었다. 이와같은 발전은 그렇게 어려움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한국양계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생산성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란계의 경우 산란지수가 야외에서 240개 수준에 머물고 있고 외국의 270개에 비한다면 수당 30개 내외가 낮으며 사료요구율에서도 3.30으로 0.85 정도의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육계의 경우도 가장 중요한 사료요구율이 2.48로서 외국에 비하여 평균 0.48 이상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닭의 생산성은 적어도 20% 이상의 개선할 여지를 안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원인이 야외 양계농가의 생산성실태 조사에서 질병에 의한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산란계의 경우 성계생존율(150일령~500일령)이 외국에서는 92% 내외인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는 75% 밖에 안되며 육계의 경우에는 98%의 수준에 비하여 92% 정도 밖에 안된다. 따라서 산란계나 육계의 경우 모두가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육종학적인 측면에서부터 종계, 부화 및 사료등의 위생과 질병예방관리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실용계 사육양계농가에서의 세심한 위생관리로서 극복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여건에서 보면 외채의 부담이 한도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외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까운 곳에 있음을 깨닫고 나라살림에 기여할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외국에서와 같은 사료요구



율로 향상시킨다면 산란계에서 26%, 육계에서 19% 수준으로 절약할 수 있어 연간 약 40만톤의 배합사료를 절약하여 8백억원, 여기에 생산성의 부가가치까지 합한다면 연간 약 1,000억원 상당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얻어진 것으로 양계산업분야에서 문제되고 있는 유통 및 양계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향상분야에 투입한다면 한국의 양계산업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동안 양계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양계인들의 의식구조의 개혁이

다. 양계분야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실천력을 과시해야만 한다. 강력한 조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두가 양계조직에 참여하여 앞으로 경합되는 다른 산업과의 경쟁에서 슬기와 극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체제확립과 훈련이 필요하다.

비교적 한국양계발전에 관여한 과학적인 차원에서 기술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학계나 기술계의 수준은 타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양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조직화하고 (양계협회, 양계조합, 가금학회) 잘 관리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생산성향상을 위한 질병예방 및 위생기술의 제도적 확립, 사양관리 및 경영기술개선을 위한 일련의 기술체계화와 일선 양계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지도 특히 양계산물의 식품화 내지는 상품의 가치성을 높이고 유통체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양계산물의 식품으로서의 위치를 향상시켜 양계산업발전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한국양계산업의 선진화의 지름길일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에는 꼭 성취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조성에 다 같이 참여하자.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임회 안내

본회 임회절차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아직도 임회하지 아니한 양계인은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임회하여 양계산업발전에 힘을 모읍시다. <회원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관을 찬동하는 자로써 일반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1. 일반회원

- 가. 부화회원: 허가를 받아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
- 나. 종계회원: 등록을 필하고 종계업을 경영하는 자.
- 다. 채란회원: 채란업을 경영하는 자.

라. 육계회원: 육계업을 경영하는 자.

마. 감별회원: 초생추 감별사자격증 소지자.

- 2. 단체회원: 법인, 조합 및 기업양계업자 또는 양계단지 (계우회 포함)
- 3. 특별회원: 닭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학자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위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본회에 임회코자 하는 사람은 본회에 비치된 소정의 임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하시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회가 됩니다.

1984. 2. 1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